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Related Variables in Transition with Latent Growth Model

김연주(YeonJu Kim), 이지민(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variabl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atic behaviors change according to gender and as time passes by and how the variables influence adolescent problematic behaviors. The variables selected for the analysis are personal variables, parent variables, peer and school variables, and community variable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for 4 years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initially from 2,707 fifth grade elementary students in 2005 and they were traced until 2008. The final respondents were 2,448 stud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changes of problematic behavioral variables in terms of the gender difference. Second,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and self-control are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problematic behaviors and stress level is strongly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behaviors. Third, the study pressure and peer attachment level are correlated to the initial value of internalizing problematic behaviors. In conclusion, given that more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found at initial values than the change rates among variables, early intervention is important in addressing adolescent problematic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청소년 전환기(Adolescent in Transition),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전환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이 시기는 2차 성징의 발현과 함께 성적 호기심과 성적욕구가 증가하고, 폭넓고 고차원적인 사고의

발달과 함께 자아개념이 성숙하는 시기이다(J. Kim et al., 2002).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권위에 대한 반항과 비판의 태도를 통해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등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제의 변화로 인해 초등학교 때와는 달라진 수업방식과 부담감이 커진 학업,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Daehakro 280, Gyeongsangsi, Gyeongsbuk 712-749, Korea, Tel: +82-53-810-2866, E-mail: ljimin@yu.ac.kr

새로운 규칙과 의무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 등의 다양한 감정을 갖게 된다. 청소년 전환기는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혼란함과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태로 우울과 불안,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C. M. Midgley, 2002; R. Matachi, R. W. Roeser, & H. Gelbach, 2002; S. Yoo, 2007).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1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12.8세에 첫 음주와 12.7세에 첫 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인 14세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남학생은 29.6%, 여학생은 39.2%로 나타났다.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은 14세 남학생이 15.7%, 여학생이 25.9%로 나타났으며, 자살 시도율은 14세에 남학생의 4.3%, 여학생의 8.4%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또 비행 및 범죄현황에서 16세 소년범이 24.1%로 가장 많고, 15세가 21.5%, 14세가 9.9%로 나타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후기부터 중학교 초기에 걸쳐 많이 발생되고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의 42.7%가 개인의 성격과 우울증세, 위축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9.0%가 학교폭력(가해, 피해, 왕따)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3.6%가 개인의 성격과 우울증세, 위축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학교폭력(가해, 피해, 왕따)이 11.4%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이처럼 우울, 위축, 자살생각 등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이미 초등학교시기에 나타나고 있고,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비행,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저 연령화되고 있으며, 자살과 폭력, 비행 등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며,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처럼 문제행동이 표면화되거나 급격하게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지기 쉽고, 문제가 축적되어 청소년기에 더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H. Chung, 2011). 따라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H. Jwa & G. Beon, 2010), 이를 통해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예방과 좀 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종단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H. Chung(2011)은 아동기의

문제행동과 발달단계 간 관계와 예측변인 연구를 하였으며,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환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시간에 따른 종단 연구(H. Jwa & S. Oh, 2011)와 Y. Cho(2010)의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종단연구와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단계 연구(Y. Cha & Y. Kim, 2010), 일탈또래와 내면적인 문제행동(E. T. Barker, N. L. Galambos, & D. M. Almeida, 2003), S. K. Paulos(2007)의 부모-자녀 갈등과 아동, 청소년의 우울문제 등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종단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종단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 파악이 가능하고, 각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중 또래 및 학교 변인관계, 부모변인, 스트레스, 우울 등 일부 변인들만을 다루고 있어 문제행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Y. Cha & Y. Kim, 2010) 문제행동은 인간이 다양한 체계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들 간의 영향을 좀 더 고려 할 필요가 있다(H. Chung, 2011; Y. Cha & Y. Kim, 2010). Y. Oh(2010)도 청소년문제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좁은 의미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 문제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정도와 개인과 환경이 주고받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며, 어떤 환경은 한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독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접적이고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M. Lee, 2003). 또한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이 단독으로 어느 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력의 크기와 문제행동의 내용과 결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G. H. Brody, S. Kim, V. M. Murry, & A. C. Brown, 2004). 따라서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변인, 부모변인, 또래 및 학교변인, 지역사회 환경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들 변인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 영향력과 내용에 따라 우선적인 예방과 시기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인적인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B. Compas, D. Howell, & V. Phraes, 1989; H. Kim, 2002; S. Lee, 2007).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자원과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년 전환기의 문제행동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할뿐 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다(H. Kim, 2002). 자아통제력은 좋은 결과를 위해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된 변인(L. Shaffer, 2002)으로, 자아통제력은 문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조절력과 관련이 크다. 자아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는데 비해,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예방 및 조절에 있어서 자아통제력은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체·심리·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변인은(R. S. Lazarus & S. Folkman, 1984),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긴장으로 사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경험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문제나 학교 성적문제, 교사와의 갈등, 부모와의 의견충돌, 가족의 경제적 문제, 친구관계에서 오는 무시, 놀림, 거부, 폭행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감정적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애착은 개인에게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 C. Han, S. Y. Lee, S. S. Lim, S. H. Rue, & Y. C. Kim, 2012),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 경험은 대인관계 뿐 아니라,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O. Jung, 2008). 부모애착과 함께 부모감독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J. Ko, 2005)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위험성을 낮추고, 위험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적절한 통제력을 갖게 한다(A. Won, 2007).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 Han et al., 2012). 게다가 부모간의 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 불화,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부재 및 단절을 유발하게 되어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에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며(Y. Lee & S. Go, 1994). 부부의 불화와 같은 갈등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J. Jung & M. Kim, 2014).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언어적·비언어적 학대와 함께 신체적인 학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 Lee, 2011), 부모학대의 경험은 청소년의 자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심리적 위축, 불안, 우울 등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 Kim, J. Lee & G. Seong, 2011). 청소년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생활은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시기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큰 시기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있는지 배척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제행동과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C. Han et al., 2012). 특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성적 만능주의와 같은 가치관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며, 성적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적인 분위기와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등 성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학교 분위기에서 교사와의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는 청소년들의 학업과 친사회적인 행동과 책임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K. R. Wentzel, 1997),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J. Kim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는 지역 사회환경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로, 지역사회의 비교육적인 환경, 사회계층간의 갈등, 유해한 대중매체 등 부정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의 가치관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인들의 적절한 관심과 감독은 문제행동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것(M. O. Caughy, S. M. Nettles, P. J. O'Campo, & K. Lohrfink, 2006)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전환기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면화 문제행동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 Jwa & S. Oh, 2011).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Y. Cha & Y. Kim, 2010; J. Lee, 2008; J. Oh, 2010)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J. Lee(2006)의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연구에서 여학생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도록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은 외현화 하는 행동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차이로 볼 때(H. Jang, 2005; H. Kim, 2001) 청소년 전환기 시기의 남, 여의 발달의 정도와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별

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서도 남·여 성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의 성별에 따른 변화양상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전환기의 문제행동의 연속적인 과정을 다루고, 청소년 전환기의 문제를 발달 과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와 부모변인으로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갈등, 부모학대를 살펴보고, 또래 및 학교변인으로 학업압력,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정도에 따른 문제행동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환경으로 지역사회애착과 지역사회감독을 통해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변화의 특성과 변인들의 영향력 파악을 통하여 청소년 전환기의 문제행동의 좀 더 적극적인 예방·치료 개입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2>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은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2-1]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문제행동은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2-2] 청소년 전환기 외현화 문제행동은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3>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1]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2] 청소년 전환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에서 제공하는 초4(2004)~중2(2008)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인 2차년도(2005)부터 중학교 2학년인 5차년도(2008)까지 추적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패널데이터 자료는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2004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제주도 제외) 15개의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해 추출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총 630,694명 중에서 1차년도(2004년)에 최종 확정된 표본 수 총 2,844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차년도(2005년)에는 해외 유학 및 이민, 장기입원 등 조사 불가능한 사례와 강력거절,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조사 실패 사례로 총 2,707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3차년도(2006년)에는 총 2,672명의 사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4차년도(2007년)는 총 2,511명의 사례가 5차년도(2008년)는 2,448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총 2,707명으로 이 중 남학생은 1,450명(53.6%)이고 여학생은 1,257명(46.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학력은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이 44.4%, 고등학교 졸업이 43.5%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업이 6.4%, 중학교 졸업이 4.1%, 초등학교 졸업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61.2%,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이 30.4%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졸업 5.1%, 초등학교 졸업 1.7%, 대학원졸업 1.4%, 무학 0.1%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이 29.4%, 200~300만원이 28.1%로 나타나 다른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이 13.9%, 100~200만원이 12.5%, 400~500만원 12.0%, 100만원 이하 3.0%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성형태를 보면 양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 부모 4.0%, 재혼부모 0.6%, 부모 모두 사망 한 경우는 0.3%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직업은 생산·기계 조립·조작이 29.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사무종사자 28.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9.1%,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9.2%, 국회의원·고위임원 및 관리자 6.3%, 단순노무자 3.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6%, 무직1.8%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은 무직이 48.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5.5%, 생산·기계 조립, 조작,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각각 7.9%로 나타났으며, 사무종사자가 7.1%, 의회의원·고위임원 및 관리자가 1.6%, 단순노무자 1.4%, 기타 0.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내면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우울, 불안, 자살생각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846, 3차년도 = .845, 4차년도 = .845, 5차년도 = .854로 나타났다.

2)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공격성을 묻는 6문항과 비행행동문항의 15문항을 합한 21 문항을 사용하였다. 공격성을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비행행동의 문항은 빈도수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1회는 1점, 2~3회를 2점, 4~5회를 3점, 6~7회를 4점, 8회 이상을 5점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800, 3차년도 = .795, 4차년도 = .795, 5차년도 = .807로 나타났다.

3) 개인변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사용한 질문지 중 자아존중감 6문항, 자아통제력 6문항, 스트레스 16문항 등 총 28문항을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764, 3차년도 = .761, 4차년도 = .767, 5차년도 = .777로 나타났다.

(2) 자아통제력

자아통제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656, 3차년도 = .708, 4차년도 = .737, 5차년도 = .755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1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DMS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물질요인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918, 3차년도 = .914, 4차년도 = .900, 5차년도 = .899로 나타났다.

4) 부모변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사용한 부모변인 관련 질문지 중 부모애착 6문항, 부모감독 6문항, 부모갈등 2문항, 부모학대 2문항 등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1)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815, 3차년도 = .858, 4차년도 = .877, 5차년도 = .896로 나타났다.

(2)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2차년도 = .836, 3차년도 = .869, 4차년도 = .871, 5차년도 = .890로 나타났다.

(3) 부모갈등

부모갈등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문항

Table 1. The Number of Survey Participants

The Year of Survey		Boys	Girls	Total
2nd	2005	1,450(53,6)	1,257(46,4)	2,707
3rd	2006	1,418(53,1)	1,254(46,9)	2,672
4th	2007	1,329(52,9)	1,182(47,1)	2,511
5th	2008	1,303(53,2)	1,145(46,8)	2,448

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634, 3차년도 = .710, 4차년도 = .793, 5차년도 = .810로 나타났다.

(4) 부모학대

부모학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756, 3차년도 = .827, 4차년도 = .854, 5차년도 = .871로 나타났다.

5) 또래 및 학교변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사용한 또래 및 학교변인 관련 질문지 중 학업압력 4문항, 교사에착 4문항, 또래 애착 4문항 등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1) 학업압력

학업압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부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633, 3차년도 = .632, 4차년도 = .629, 5차년도 = .597로 나타났다.

(2) 교사에착

교사에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선생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642, 3차년도 = .678, 4차년도 = .723, 5차년도 = .745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674, 3차년도 = .707, 4차년도 = .718, 5차년도 = .697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변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사용한 지역사회변인 관련 질문지 중 지역사회애착 2문항, 지역사회감독 2문항 등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1) 지역사회애착

지역사회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834, 3차년도 = .848, 4차년도 = .848, 5차년도 = .708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감독

지역사회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감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2차년도 = .772, 3차년도 = .811, 4차년도 = .846, 5차년도 = .845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환기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변인의 성별에 따른 변화양상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을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크기 추정이 가능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 추정이 가능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 LGM)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LGM)은 3번 또는 그 이상의 종단자료나 패널자료에 대하여 집단평균 또는 개인의 수준에서의 변화의 크기를 추정하는 연구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방법을 따른다(G. Kim, 2009). 잠재성장모형은 2단계를 거쳐 분석되는데, 1단계는 평균 발달곡선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추정하는 무조건적 모델(Unconditional model) 분석단계와 2단계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요인으로서의 초기치, 변화율을 다양한 요인들에 연결시켜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조건적 모델(Conditional model) 분석단계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개인변인, 부모변인, 또래 및 학교변인과 지역사회변인을 설정하고, 내면화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모형(무조건모형)

연구문제2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도출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여 4개년 반복 측정자료에 적합 시킨 후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을 도출하였으며, 또 시간에 따른 개인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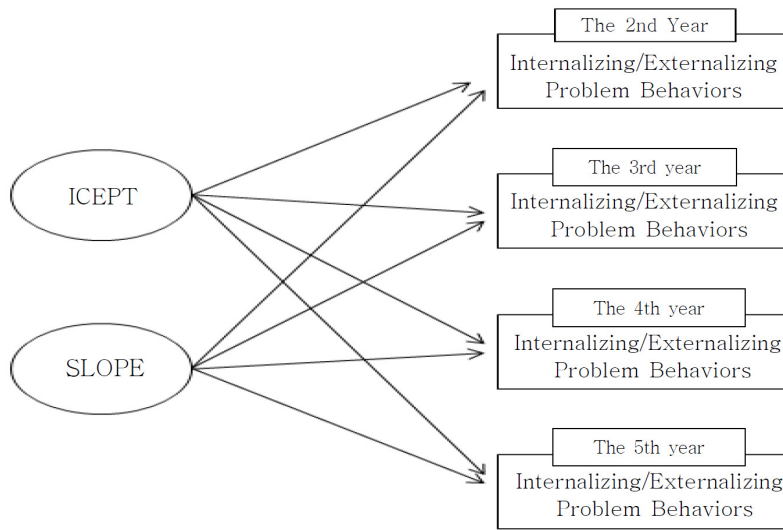


Figure 1. Unconditional Model Latent Growt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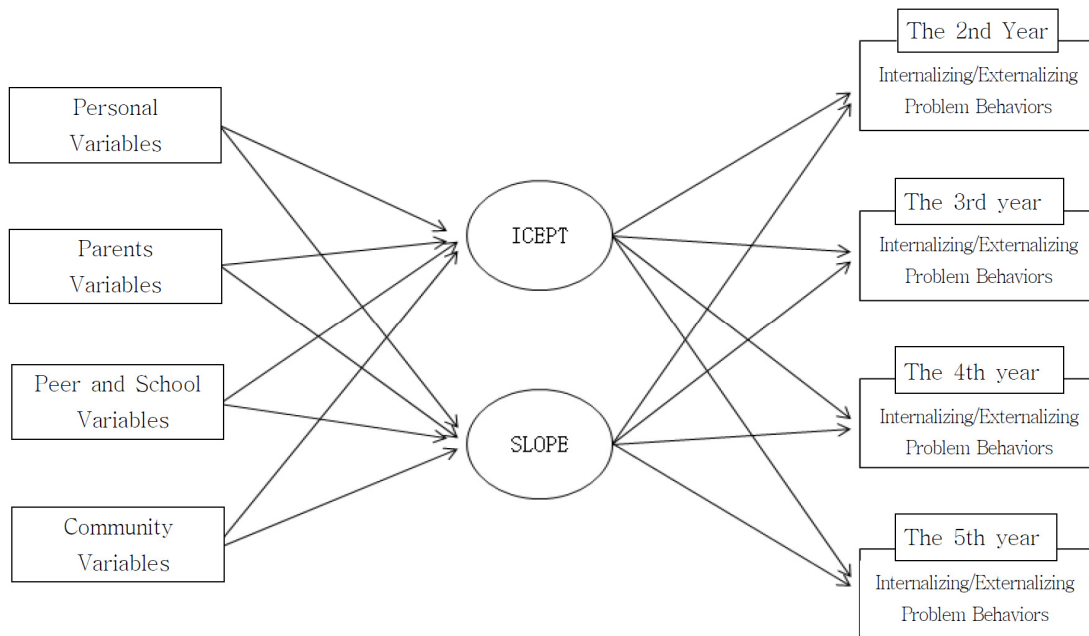


Figure 2. Conditional Model Latent Growth Model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하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2를 위한 연구모형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2) 시간변화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조건모형)
 연구문제3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요인으로서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연결시켜 종속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3을 위한 연구모형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3) 잠재성장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개인변인, 부모변인, 또래 및 학교변인과 지역사회변인의 각 하위변인의 초5(2005년)에서 부터 중2(2008년)까지 4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2차 곡선 변화모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초기치(intercept:상수)만 있고, 변화율(s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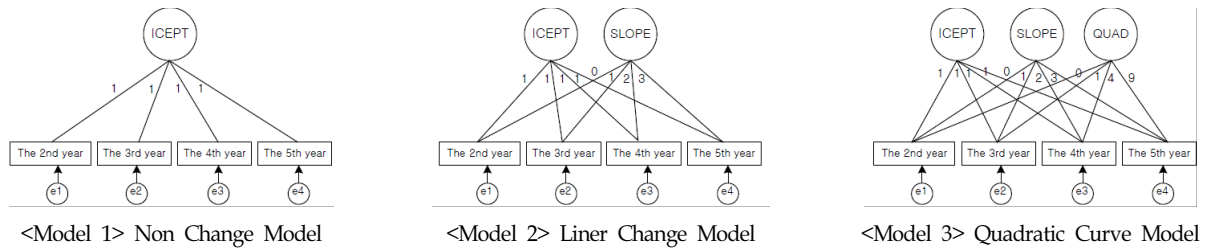


Figure 3. Latent Growth Model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pe:기울기)은 설정하지 않은 모형으로 4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선형변화모형은 잠재 성장의 가장 기본형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2개의 잠재변인이 있는 것으로서 초기치의 변인 계수를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의 변인계수를 0, 1, 2, 3으로 고정하여 4년 동안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차곡선모형은 초기치와 변화율 2개의 변인이 있는 선형모형에 이차곡선을 추가하여 이차곡선의 변인계수를 0, 1, 4, 9로 고정한다. 이는 복잡한 성장모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1차항의 계수값을 계수로 지정하여 4년 동안 2차 곡선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잠재성장모형은 <Figure 3>과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의 전환기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의 성별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다변량 정규성 가정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2의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으로 완전최대우도추정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또, 각 변인들이 4년 동안 어떻게 변화 되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델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잠재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는 절대적 합치수(absolute fit index)인 χ^2 통계량과 RMSEA,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CFI와 TLI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 지수로 CFI와 TLI는 0.90이상이면 모델수용이 가능하고, RMSEA는 0.10이하이면 수용할 만하고, 0.05 이하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G. S. Kim, 2009). 이와 같은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최적 모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점별 변인의 초기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3의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인들과 종속변인과의 최적의 결합모형 적합도를 산출하고 각 변인들과 종속변수와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내적 합치도 계수 산출을 위해 SPSS 20.0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내면화 문제행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시기에 감소하기 시작하고, 여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내면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외면화 문제행동은 남,여학생 모두가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남, 여학생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변인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서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력은 남학생의 경우는 학년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의 자아통제력의 정도가 중학교 2학년에 와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lated Variables

Variables	Gender	The 2 nd Year (E5)	The 3 rd Year (E6)	The 4 th Year (M1)	The 5 th Year (M2)		
		M (SD)	M (SD)	M (SD)	M (SD)		
Dependent Variable	Internalizing	Boys	2.13(.85)	2.15(.81)	2.19(.79)	2.16(.82)	
	Problem Behaviors	Girls	2.12(.85)	2.28(.85)	2.39(.85)	2.48(.84)	
	Externalizing	Boys	1.49(.30)	1.50(.29)	1.53(.29)	1.54(.32)	
	Problem Behaviors	Girls	1.42(.25)	1.48(.28)	1.51(.30)	1.53(.30)	
Personal Variables	Self-Esteem	Boys	3.45(.69)	3.41(.67)	3.44(.66)	3.48(.66)	
		Girls	3.49(.67)	3.42(.68)	3.42(.67)	3.44(.66)	
	Self-Control	Boys	3.51(.71)	3.50(.71)	3.52(.71)	3.50(.73)	
		Girls	3.78(.65)	3.64(.70)	3.68(.75)	3.49(.74)	
	Stress	Boys	1.96(.73)	2.13(.73)	2.31(.70)	2.32(.69)	
		Girls	2.01(.74)	2.23(.74)	2.49(.72)	2.50(.70)	
In-Dependent Variable	Parental Attachment	Boys	3.59(.76)	3.60(.76)	3.51(.76)	3.47(.76)	
		Girls	3.80(.74)	3.76(.78)	3.60(.81)	3.56(.83)	
	Parental Supervision	Boys	3.38(.96)	3.50(.90)	3.42(.86)	3.40(.87)	
		Girls	3.72(.88)	3.74(.83)	3.62(.89)	3.61(.88)	
	parental Conflict	Boys	1.66(.88)	1.64(.86)	1.72(.94)	1.78(.95)	
		Girls	1.52(.78)	1.56(.78)	1.65(.86)	1.70(.87)	
	Parental Abuse	Boys	1.64(.89)	1.60(.88)	1.67(.96)	1.68(.94)	
		Girls	1.37(.73)	1.40(.73)	1.46(.79)	1.52(.82)	
	peer and School Variables	Peer Attachment	Boys	3.77(.71)	3.70(.69)	3.74(.66)	3.75(.67)
			Girls	3.87(.71)	3.80(.68)	3.86(.66)	3.80(.64)
Teacher Attachment		Boys	2.54(.88)	2.60(.82)	2.66(.82)	2.62(.80)	
		Girls	2.87(.91)	2.74(.88)	2.62(.92)	2.51(.89)	
Study Pressure		Boys	2.61(.70)	2.72(.65)	2.98(.66)	2.98(.61)	
		Girls	2.52(.68)	2.70(.65)	3.00(.64)	3.04(.63)	
Community Variables	Community Attachment	Boys	3.27(1.03)	3.06(1.01)	2.85(1.01)	2.74(1.04)	
		Girls	3.26(.98)	3.03(.99)	2.81(1.01)	2.69(.95)	
	Community Supervision	Boys	3.69(1.09)	3.63(1.09)	3.53(1.09)	3.41(1.12)	
		Girls	3.91(.98)	3.70(1.01)	3.50(1.05)	3.40(1.02)	

Note: E(Elementary School), M(Middle School)

났다. 또 스트레스에서는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에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은 남, 여학생 모두 점점 증가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모학대도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및 학교변인에서 또래애착은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감소를 보이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교사애착은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감소와 증가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감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압력은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역애착과 지역감독은 남, 여학생 모두 계속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 여학생 간의 차이에서는 지역사회애착과 지역사회감독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감소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1)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 연구모형 분석

(1)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인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

Table 3. Latent Growth Model Fit of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Variables	Gender	Chang Model	χ^2 (df)	TLI	CFI	RMSEA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oys	Non Change Model	89.039(11)	.882	.870	.070
		Liner Change Model	25.472(8)	.964	.971	.039
		Quadratic Curve Model	25.931(6)	.945	.967	.048
	Girls	Non Liner Change Model	262.772(11)	.737	.711	.135
		Liner Change Model	27.496(8)	.972	.978	.044
		Quadratic Curve Model	36.747(6)	.941	.965	.064

TLI & CFI : >.90 - Acceptable, RMSEA : <.05 - Close Fit, <.10 - Mediocre Fit

Table 4. Latent Growth Model Fit of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Variables	Gender	Chang Model	χ^2 (df)	TLI	CFI	RMSEA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oys	Non Change Model	226.117(11)	.801	.781	.116
		Liner Change Model	7.584(8)	1.000	1	.010
		Quadratic Curve Model	7.065(6)	.998	.999	.011
	Girls	Non Change Model	319.647(11)	.749	.724	.149
		Liner Change Model	46.573(8)	.957	.966	.062
		Quadratic Curve Model	54.594(6)	.928	.957	.080

TLI & CFI : >.90 - Acceptable, RMSEA : <.05 - Close Fit, <.10 - Mediocre Fit

Table 5. Latent Growth Model Estimate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and Related Variables

Paramater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lf-Esteem	Self-Control	Stress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Supervision	
Intercept	Boys	Mean	2.131 ^{***}	1.490 ^{***}	3.433 ^{***}	3.517 ^{***}	1.984 ^{***}	3.609 ^{***}	3.413 ^{***}
		Variance	.304 ^{***}	.046 ^{***}	.230 ^{***}	.250 ^{***}	.257 ^{***}	.279 ^{***}	.430 ^{***}
	Girls	Mean	2.139 ^{***}	1.429 ^{***}	3.467 ^{***}	3.768 ^{***}	2.049 ^{***}	3.811 ^{***}	3.745 ^{***}
		Variance	.360 ^{***}	.031 ^{***}	.210 ^{***}	.228 ^{***}	.303 ^{***}	.295 ^{***}	.380 ^{***}
Slope	Boys	Mean	.015	.018 ^{***}	.013	-.004	.130 ^{***}	-.044 ^{***}	.005
		Variance	.036 ^{***}	.008 ^{***}	.024 ^{***}	.024 ^{***}	.022 ^{***}	.020 ^{***}	.024 ^{***}
	Girls	Mean	.119 ^{***}	.037 ^{***}	-.012	-.096 ^{***}	.175 ^{***}	-.085 ^{***}	-.043 ^{***}
		Variance	.034 ^{***}	.003 ^{***}	.017 ^{***}	.020 ^{***}	.025 ^{***}	.031 ^{***}	.025 ^{***}
Correlation Coefficient		-.562	-.473	-.504	-.406	-.498	-.327	-.530	
		-.422	-.051	-.378	-.129	-.485	-.262	-.344	

***p < .001

Paramater		Parental Conflict	Parental Abuse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Study pressure	Community Attachment	Community Supervision	
Intercept	Boys	Mean	1.635 ^{***}	1.621 ^{***}	3.743 ^{***}	2.565 ^{***}	2.619 ^{***}	3.254 ^{***}	3.705 ^{***}
		Variance	.181 ^{***}	.254 ^{***}	.206 ^{***}	.252 ^{***}	.226 ^{***}	.453 ^{***}	.366 ^{***}
	Girls	Mean	1.517 ^{***}	1.364 ^{***}	3.851 ^{***}	2.872 ^{***}	2.540 ^{***}	3.243 ^{***}	3.894 ^{***}
		Variance	.205 ^{***}	.183 ^{***}	.219 ^{***}	.276 ^{***}	.223 ^{***}	.481 ^{***}	.307 ^{***}
Slope	Boys	Mean	.046 ^{***}	.019	-.002	.031	.135 ^{***}	-.181 ^{***}	-.090 ^{***}
		Variance	.024 ^{***}	.038 ^{***}	.022 ^{***}	.030 ^{***}	.021 ^{***}	.044 ^{***}	.051 ^{***}
	Girls	Mean	.063 ^{***}	.055 ^{***}	-.014	-.121 ^{***}	.184 ^{***}	-.200 ^{***}	-.176 ^{***}
		Variance	.021 ^{***}	.021 ^{***}	.014 ^{***}	.026 ^{***}	.018 ^{***}	.030 ^{***}	.032 ^{***}
Correlation Coefficient		-.089	-.353	-.582	-.562	-.577	-.420	-.381	
		-.048	-.178	-.585	-.441	-.525	-.351	-.192	

***p < .001

차곡선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남, 여학생 모두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최종모형으로 선형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또 청소년 전환기 외면화 문제행동의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남, 여학생 모두 청소년

년 전환기 외면화 문제행동의 최종모형으로 선형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별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Table 6. Mixture model Fi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and Related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Gender	χ (df)	TLI	CFI	RMSEA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oys	104.773(30)	.925	.984	.041
	Girls	77.293(30)	.954	.990	.035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oys	75.290(30)	.957	.991	.032
	Girls	119.361(30)	.916	.981	.049

TLI & CFI : >.90 - Acceptable, RMSEA : <.05 - Close Fit, <.10 - Mediocre Fit

Table 7. Related Variables by Time Passes of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Variable	Gender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tercept	Slope	
Personal Variables	Boys	Self-Esteem	-.222***	-.049***
		Self-Control	-.036***	.011
		Stress	.362***	-.100***
	Girls	Self-Esteem	-.257***	-.067***
		Self-Control	-.146	.021
		Stress	.415***	-.106***
Parents Variables	Boys	Parental Attachment	.049	-.015
		Parental Supervision	.003	-.011
		Parental Conflict	.015	.020
		Parental Abuse	.073	-.002
	Girls	Parental Attachment	.035	-.007
		Parental Supervision	.030	-.028
		Parental Conflict	.037	.015
		Parental Abuse	-.050	.007
Peer and School Variables	Boys	Peer Attachment	-.029	.006
		Teacher Attachment	-.005	.006
		Study Pressure	.128***	-.039
	Girls	peer Attachment	-.202***	.004
		Teacher Attachment	.014	-.016
		Study Pressure	.034	.000
Community Variables	Boys	Community Attachment	-.004	.003
		Community Supervision	-.046	.008
	Girls	Community Attachment	-.008	-.008
		Community Supervision	.020	.020
R ²	Boys		.674	.337
	Girls		.722	.416

***p < .001

변인별 잠재성장모형 적합도에 따른 변인별 초기치와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평균이 여학생은 2.139, 남학생은 2.131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평균은 남학생이 1.490으로 여학생 1.4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 평균이 여학생 .119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서는 남학생이 .008로 여학생은 .037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과 관련변인

1)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의 결합모형 적합도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련변인들과의 결합모형의 적합도에서 남, 여학생 모두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결합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2)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관련변인

청소년 전환기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222, 자아통제력 -.036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5학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362, 학업압력 .128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스트레스와 학업 압력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257, 또래애착 -.202이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5학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 .415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남, 여학생 모두에게 내면화 문제행동과 정적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화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남학생이 -.049로 여학생이 -.067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100로 여학생은 -.106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 여학생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 전반기 내면화문제행동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전반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관련변인
 청소년 전반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039과 스트레스 .112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애착 -.027과 자아통제력 -.119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 전반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에서 스트레스 .110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통제력 -.140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통제력 .023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 -.032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031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lated Variables by Time Passes of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Variable	Gende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tercept	Slope
Personal Variables	Boys	Self-Esteem	.039**
		Self-Control	-.119***
		Stress Level	.112**
	Girls	Self-Esteem	-.031
		Self-Control	-.140***
		Stress Level	.110***
Parents Variables	Boys	Parental Attachment	.029
		Parental Supervision	-.001
		Parental Conflict	.022
		Parental Abuse	.017
	Girls	Parental Attachment	.020
		Parental Supervision	-.003
		Parental Conflict	.003
		Parental Abuse	.012
			-.003
Peer and School Variables	Boys	Peer Attachment	.020
		Teacher Attachment	-.027**
		Study Pressure	-.009
	Girls	Peer Attachment	.020
		Teacher Attachment	-.014
		Study Pressure	-.023
Community Variables	Boys	Community Attachment	.000
		Community Supervision	.000
	Girls	Community Attachment	-.008
		Community Supervision	-.016
R ²	Boys	.021	.508
	Girls	.671	.219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성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로써 청소년 전환기의 문제행동을 발달 과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의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의 성별에 따른 변화양상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따른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학생의 경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여학생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최초 측정시점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불안이나 신체증상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Stattin & Kerr, 2000)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춘기 초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으로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것(K. Kim, 2012)으로 볼 수 있다. 또,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 여학생 모두가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남, 여학생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J. Lee, 2006)는 연구결과와 M. Lee(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집단 따돌림, 가해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J. Jung and M. Kim(2014)의 청소년 문제행동

성별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현화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J. Lee(201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는 최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중학교의 진학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의 현상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감한 청소년시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다양한 요인들과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J. Jung & M. Kim, 2014)는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첫째, 청소년 전환기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Y. Cha, 2010; J. Lee, 2008; H. Jwa, 2010)와 일치하며, 중학교에 진학한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와는 달라진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H. Kim(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내면화 문제행동의 남, 여학생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서는 여학생만이 유의한 변화를 보여, 여학생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 여학생 간의 격차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내면화 문제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관계없이 내면화 문제행동의 격차가 커진다는 연구결과(H. Jwa & S. Oh, 2011)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계적 연구(L. V. Scaramella, 1999)에서도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 속도가 빨라 일정시간이 지난 후 남, 여학생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 내면화 문제행동의 분산 초기치가 남·여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 최초 측정시점인 초등학교 5학년에서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개인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전환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서 초기청소년으로 갈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J. Lee,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수많은 변화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공격적 행동, 폭력, 성 비행, 자살 등 부적응 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H. Shin & B. Khy, 2001)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변화율이 더 커서 여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남,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최초의 측정시점인 초등학교 5학년 때 외현화 문제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차이가 있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모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경험과 특성에 따라 문제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Y. Chy, 2010) 이해될 수 있다.

3.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의 성별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청소년 전환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학업압력, 또래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 여학생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학업압력이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또래애착이 영향을 미쳤다. 또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남,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전환기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교사애착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통제력,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 여학생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교사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자아통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학생은 자아통제력과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

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무력감과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외현화문제행동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M. Seo(2004)의 연구와 부적절한 자아개념에 대한 과잉보상의 한 형태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거부적인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탈적인 행동을 선택한다(S. Han, 2012)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4년간 평균점수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낮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S. Kim(2010)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전환기에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변화가능한 시기가 있어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위한 치료적 개입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트레스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한 Y. Jo(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시기에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남학생이 학업압력으로 인한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놓인 학생들의 중학교에 대한 지각 및 기대조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이 중학 입학으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학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들이 중학 입학 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부분도 학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S. Yoo, 2007). 게다가 2008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성적 중심의 학업 분위기에 대한 압박감(J. Oh & H. Song, 2013)을 초등학교 때부터 느끼게 되면서 심리·정서적인 부담감과 근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은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관계는 남학생이 더 개방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래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또래와 더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 관계를 유지한다는(S. Soon & S. Oh, 2014)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각 변인들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잠재성장모형 추정치에서는 변인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 또는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합모형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인들과의 결합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학업압력, 또래애착, 교사애착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갈등, 부모학대, 지역사회애착과 지역사회감독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어 이러한 요인이 분석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전환기에 나타나는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성별의 변화양상은 남, 여학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관련변인에서도 남, 여학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기적인 변화의 경험이 남·여가 다를 수 의미하고, 그에 따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 전환기의 문제행동을 지속,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는 학업압력과 또래애착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는 교사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환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사춘기적 발달과정을 잘 이행하고 초등학교 생활에서 중학생으로 잘 적응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 개입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 및 치료 접근 시 남·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중학교 진학에 따른 예비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그동안 청소년 문제행동 연구에서 횡단적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종단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발달 과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 부모,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해결 및 예방적 치료 전략을 세울 때,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함을 시사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 자료에서 구성된 변인들의 질문지 문항의 수가 너무 적어 각 변인들의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를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잠재변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시불변(time-invariant)변인으로 사용하여, 잠재변인의 초기시점의 값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잠재변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시변적(time-varying) 변인으로서 종속변인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와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의 초기시점과 중학교 2학년의 변화시점에 대한 변화의 값과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은 추정되었지만, 매 학년마다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매 학년마다의 문제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을 함께 추정 해 낼 수 있는 접근을 고려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hn, H. W. (2007).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 and parental monito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rody, G. H., Kim, S., Murry, V. M., & Brown, A. C. (2004). Protective longitudinal paths linking child competence to behavioral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siblings. *Child Development, 75*(1), 455-467.
- Caughy, M. O., Nettles, S. M., O'Campo P. J., & Lohrlink, K. (2006a). Neighborhood matters: *Racial Socialization of African-Americ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1), 1220-1236.
- Cha, Y. H. & Kim, Y. H. (2010).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their predictors. *The Journal of Korea Home Association, 48*(5), 25-48.
- Cho, Y. J. (2010).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stress in early adolescents: the use of a latent growth model. *Human Development, 17*(3), 17-35.
- Chung H. J. (2011).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bullying and problem behavior in childhood : Focused on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Compas, B., Howell, D., & Phraes, V. (1989). Perspectives on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68-71.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7). *2007 adolescence white paper*.
- Han, S. C., Lee, S. Y., Lim, S. S., Rue, S. H., & Kim, Y. C. (2012). *Youth Psychology and Counseling*, Korea Jungmins.
- Jang, H. S. (2005). Adolescent-mother conflicts and their related variables. *Development Psychology, 18*(1), 97-113.
- Jo. M. J. & Kim, M. J. (2014). An study of gender differences on Influencing factors of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Focusing on marital conflict and attachment of parent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1*(45), 267-303.
- Jo, Y. J. (2010).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stress in early adolescents: The use of a latent growth model. *The Korea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3), 17-35.
- Jung, J. K.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1-17.
- Jung, O. B. (2008). *Theories of life-Span development*. Seoul, Korea: Hakjisa.
- Jwa, H. S. & Byeon, G. Y. (2010).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 from lat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School Social Work, 1*(19), 113-140.
- Jwa, H. S. & Oh, S. H. (2011).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redictors of internalizing problem.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9-147.
- Kim, G. S. (2009). *Amos/Lisrel*. Seoul, Korea: Hannara.
- Kim, H. H. (2002). Implication of peer support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9), 47-61.
- Kim, H. J. (2001). Does gender socialization matter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yle. *The Korea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2), 81-95.
- Kim, S. H.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adolesc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myung University, Deagu, Korea.
- Kim, J. C., Lee, J. S & Seog, G. J. (2012). Impact of parents abuse on children's emotion during adolescence: Moderating effect of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 119-139.
- Kim, J. H. (2002). *Risk and problem behaviors of youth*. Seoul, Korea: Hakjisa.
- Kim, J. C., Lee, J. S. & Seog, G. J. (2011). Impact of parent's abuse on children's emotion during adolescence: moderating effect of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ren's education. Panel aterial of The 4th Korea Welfare Panel Conference.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A. Y. & Y, S. K. (2011). Influences of exposures to marital violence and child abuse on aggression of early adolescents: Findings from Korean youth panel study(KYP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225-245.
- Lee, C. M. & Yang, M. S. (2006). A study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Focused on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865-883.
- Lee, J. R. (2008). Trajectories of change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2(4), 503-523.
- Lee, M. J. (2003). *A study on the ecosystematic variables of bullying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idgley, C. M. (2002).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Mahwah, NJ: Erlbaum.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6th *youth's health types online investigation*.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2011 *Adolescence white paper*.
- Oh, J. H. & Seon, H. Y. (2013). The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academic str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981-1994.
- Oh, Y. J. (2010).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y change and clustering related to adolescent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Paulos, S. K. (2007). *Examining the role of family environment and inter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Texas at Austin.
- Roeser, R. W., Marachi, R., & Gelbach, H. (2002). *A goal theory perspective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ies and the contexts of teaching*. In Midgley, C. M. (Ed.),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pp. 205-241). Mahwah, NJ: Erlbaum.
- Scaramella, L. V., Conger, R. D., Spoth, R. & Simons, R. L. (2002). evaluation of a social contextual model of delinquency: Across-study replication. *Child Development*, 73(1), 175-195.
- Seo, M. K. (2004). *Comparative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esteem perceived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myung University, Korea.
- Shaffer, L. (2002). Adolescence' working models and styles for relationships with parents, friend, and romantic partners. *Child Development*, 73(1), 241-255.
- Shin, J. Y. & Hwang, H. W. (2006). The stres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selected eco system protective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3(5), 123-154.
- Shin, H. S. & Kim, B. Y. (2001). Stress coping and its relationship to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1), 189-225.
- Song, S. & Oh, S. Y. (2014) The effect of self-esteem, problem behavior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8(1), 93-103.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Wentzel, K. R. (1994). Relations of social goal pursuit to social acceptance, classroom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2), 173-182.
- Wentzel, K. R. (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411-419.
- Yoo, S. H. (2007). Student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355-375.

접수일 : 2014년 10월 26일
 심사일 : 2014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2월 10일